

전남지역 제조업의 존립기반과 입지특성

김 재 철*

본 연구는 주변 농촌지역인 전남지역에서 제조업의 존립기반과 입지적 특성을 고찰하였다. 먼저 제조업 입지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여 주변지역에서의 입지특성을 파악하고, 전남지역의 공간적 선행성을 분석한 후 중소기업과 독점적 대기업으로 구분하여 각각 입지적 존립 특성을 확인하였다.

전남지역은 1차산업의 비중이 높은 농수산업지역이다. 식민지 시기에는 농업에 대한 수탈이 심하여 지역자본이 축적되지 못한 곳이며, 공업화 시대에는 수도권 및 미·일 중심의 지리적 축에서 벗어나 개발이 정체되었던 곳이다. 따라서 영세한 토착성 기업이 제조업의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자본집약적인 소수 대기업이 독점적 산업공간을 형성하고 있다. 영세한 토착기업은 농수산물과 지역시장에 기반하여 존립하고 있다. 농수산물 식품가공업과 건축자재의 비금속업이 대부분을 점하고 있지만 점차 단순한 조립 및 화학업종이 증가하여 업종구조가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광주시 주변지역으로부터 내륙농촌지역과 해안지역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철강, 화학 등 소재생산 중심의 독점적 대기업의 입지는 지역제조업의 발전을 추동하지 못하고, 지역산업과는 폐쇄적으로 독점적 산업공간을 이루고 있으며, 에너지, 용수, 용지의 다수요 제조업으로서 자연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전남지역은 포드주의적 대량생산 분공장이 제조업 성장을 주도하면서 주변지역의 특성이 재생산 발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主要語 : 주변지역, 지역자본, 공간적 선행성, 토착산업, 독점적 산업공간, 포드주의

1. 서 론

1) 연구목적 및 방법

우리 나라는 풍부한 노동력을 기반으로 대외지향적 경제개발을 추진한 결과 독점적 산업자본의 급속한 성장을 가져왔다. 특히 대외지향적 경제개발은 수도권과 동남해지역에 포드주의적 대량생산의 자본집약적 산업공간을 형성하였다. 그 결과, 우리의 국토공간은 중심지역과 포드주의적 생산기능의 반주변지역, 그리고 1차산업 중심의 주변지역으로 계층화한 공간체계를 초래하였다(조명래,

1992).

계층화된 국토공간 구조하에서 주변지역으로 분류되는 전남지역은 1994년 말 현재 2,497개 제조업이 입지하고, 72,683명의 종업원이 생산에 참여하고 있다. 이는 전국 제조업의 2.7%와 2.5%를 점하여 제조업의 비중이 매우 낮은 지역이다. 특히 음식료제조업과 비금속제조업이 전남 제조업체수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생산액은 1차금속제조업과 석유화학제조업이 전체 생산액의 57%를 점하여 매우 불균등한 공업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영세한 소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공업에 특정 분야의 소수 대기업이 입지하

*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전남지역 제조업의 존립기반과 입지특성

고 있기 때문이며, 이들 대기업을 입지는 지역 생산액 변화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최근 통계수치상 전남지역은 지역총생산액이나 1인당 GRP가 상당히 높아져 전국 시·도별 순위에서 중간 위치를 점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전남지역 제조업의 질적 수준은 매우 낮은 편이며, 이는 지역경제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풀기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다. 그러므로 전남지역의 제조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양적인 변화보다는 주변지역의 공간적 특성속에서 영세한 제조업의 존립형태가 파악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농촌지역 제조업에 관한 선행적인 연구가 그리 많지 않으며, 단지 도시 제조업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을 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변 농촌지역인 전남지역에서 제조업의 존립기반과 입지적 특성을 고찰하여 제조업의 발전양상을 확인하려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 먼저 제조업 입지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여 주변지역에서의 입지특성을 고찰하고, 전남지역의 공간적 선행성을 분석한 후 중소기업과 독점적 대기업으로 구분하여 각각 입지적 존립 특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대기업은 재벌그룹과 관련된 종업원수 300인 이상의 기업체로 규정하였다. 연구수행에 이용된 자료는 전라남도 제조업체 현황을 비롯한 각종 공식적 통계자료들이며, 부분적으로 농공단지 입주업체 244개를 대상으로 1994년 12월에 시행한 설문조사와 1995년 7월에 전국 310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내용을 보완자료로 이용하였다.

2) 제조업 입지에 대한 이론적 논의

생산자본의 공간이용은 생산과 분배과정에서 공간적 특성과 관련된 비용을 절약하여 이윤을 극대화하는 행위이며, 그 결과가 입지로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산업입지는 자본주의 생산과정의 역사성을 반영한 공간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지역시장에 기반한 경쟁적 자본주의는 산업혁명 이후 대량생산(포드주의)에 의한 독점자본으로 발전하고, 대량생산으로 인한 시장의 전 지구촌으로 확대는 다국적 기업을 초래했다. 따라서 주변국가에서

도 공업화와 독점자본이 형성되었으며, 이는 오늘날 세계 단일시장에서 독점자본 중심의 치열한 경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결국 세계화란 내수시장 중심의 초기 경쟁적 자본주의와는 다른 독점자본 중심의 국제적 경쟁자본주의 발전에서 비롯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자본주의 발달과정에서 완전경쟁을 전제로 한 Weber류의 고전입지이론은 교통이 발달되지 못하고 기업의 형태가 단일공장인 초기자본주의 시기에 공장입지 본포패턴을 거리에 따른 운송비와 수요(시장지역)요인에 의해 설명하였다(Smith, 1971). 그러나 기술발달에 의한 교통시설, 제품의 수요량, 노동력의 질적 수준 등이 공간적으로 다양하고, 기업구조가 다국적, 다공장화된 현대 독점자본주의에서 제조업의 입지를 설명하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다. 일반적으로 불확실성이 내재된 현실에서 기업은 기업합병 및 인수, 다각화, 기술개발 등을 통해 독점적 이윤과 기업성장을 추구하게 되어, 공간적으로 다양한 입지행태를 보이기 때문이다(Lloyd & Dicken, 1972).

이러한 맥락에서 상품순환이론(product cycle theory)은 상품기술과 수요의 변화에 따라 제조기업을 도입기, 성장기, 표준화기로 구분하고, 중심국가에서 개발된 상품이 수요의 성장기를 거쳐 표준화된 생산단계에 이르면 기술보다 저렴한 단순 노동력이 중요하여 주변국가로 이전되는 순환과정을 제시했다. 이는 일국내에서도 생산기술 수준에 따라 제조업이 중심도시에서 주변지역으로 확산되는 과정에 적용되기도 했다.

또한 기업성장에 따른 공간조직 개념에 의하면 기업이 다국적 기업으로 성장해 감에 따라 핵심지역에서 점차 국내외로 분공장 및 판매시설이 확대된다는 것이다(Hakanson, 1979). 이 개념은 기업이 시장을 확대함에 따라 규모가 커지고, 독립적인 부서로 분리된 각 운영단위들이 적합한 입지를 찾아 공간적으로 분리입지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공장은 비도시지역의 공업화에 적용되었고, 의사결정의 외부통제에 주목하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중시하였다¹⁾(Watts, 1981; Erickson, 1983).

이와 같은 논의는 어느 정도 주변지역의 공업화

를 설명하는 데 타당성을 지니고 있지만 기술발전과 시장요인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결과, 공업입지의 지역적 특성과 불균형 등 자본축적의 공간적 역사성과 동태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Massey, 1979). 지역불균형과 관련하여 Harvey는 자본이 이윤창출을 위해 공간을 차별적으로 이용한 결과라고 주장하였다(Harvey, 1982). 생산관계의 공간적 구조측면을 분석한 Massey는 경제적 소유관계, 구상과 실행기능의 공간분리, 분공장내에서의 기술적 노동분화라는 세가지 측면에서 생산의 공간조직 유형을 설명하였다(Massey, 1984, 1988). 첫째, 생산계층에서 최하층의 대량생산 및 단순조립 단계의 입지는 반숙련, 저임금, 유순한 노동력의 특성을 지니고, 지역경제가 개방성을 띠며 다른 경제체제와의 통합도가 높게 나타난다. 둘째, 자동화되지 않은 조립노동으로서 표준화된 제품의 생산은 숙련노동력이 풍부한 구중심지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난다. 이 지역은 탈숙련화 과정이 진전됨에 따라 점차 그 중요성이 감소된다는 것이다. 셋째, 통제기능, 관리기능, 연구개발기능을 담당하는 생산의 최상위계층은 거대중심도에 입지한다.

이러한 공간적 분업의 재구조화 분석에서 Storper & Walker는 산업조직, 기업전략, 구체적 장소의 선행적 성격, 노동요소의 특이성을 강조하였고(Storper & Walker, 1983), 제조업이 중심부로부터 주변부로 분산하는 공간적 현상에 대해 Frobel과 Peet는 중심부의 노동비용, 노조의 호전성,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의 압력 때문에 경쟁의 심화 및 이윤을 저하에 대처하기 위한 방어적 반작용인 것으로 간주하였다(Frobel, 1982; Peet, 1987).

제조업 입지에 관한 이들 이론들은 대부분 기업의 내적 메카니즘에 의해서 기업의 입지를 주로 다루고, 국가발전과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공간의 역사적 특수성을 간과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지역의 역사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조업이 존립하는 입지적 특성을 설명해야만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즉 자본주의 발달과정에서 주변지역의 공간적 특성을 토대로 중소제조업과 독점적 외부소유의 입지적 존립특성을 설명하는 것이다. 결국 주변지역

에서 대부분을 점하고 있는 중·소 토착기업과 독점자본의 입지 특성은 주변지역의 다양한 공간적 속성을 종합함으로써 입지구조를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

2. 자본주의 발달과정에서 전남지역의 공간적 선행성

광주·전남은 한반도 서남부의 평야지대라고 하는 자연적 조건을 기초로 하여 봉건적 수취와 일제의 수탈이 집중되었던 지역이다. 광주·전남의 경작 총면적 중 일본인 소유 경지면적의 비율은 1910년 7.5%, 1930년 9.0%이며, 이는 전국평균 2.9%, 4.0%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조선총독부, 1930). 일반적으로 산업자본이 농업부문의 축적된 잉여로부터 형성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토지와 농산물에 대한 일제의 수탈은 지주계급의 몰락과 산업자본형성의 실패 원인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해방후에는 귀속사업체를 불하받아 산업자본을 형성할 수 있었으나 농지개혁에 의해 지가증권을 소유한 지주들이 시중에 헐 값에 팔아 그 기회가 무산되었다.

1960년대 이후 국가주도의 대외지향적 경제개발정책은 산업구조 및 기업조직 그리고 산업경관을 크게 변화시켰다. 1960년대는 노동집약적 경공업이 발전하여 서울, 부산 등 대도시 중심으로 제조업이 발달하고, 이는 1970년대초 선진국의 경제불황에 따른 수출감소로 성장의 한계에 직면하였다. 이처럼 국내외적 경제위기는 선진국의 포드주의적 대량생산자본이 노동비가 저렴한 주변국가로 점차 이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는 노동력이 풍부한 우리나라가 중화학공업을 육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작용하였다.

중화학공업을 새로운 축적분야임과 동시에 국가의 경쟁규제로 처음부터 독점력을 확보할 수 있었고, 보조금, 금융지원, 조세감면, 공단조성과 같은 막대한 정부의 지원과 외국차관이나 정부 투·융자에 의존할 수 있어 기업은 중화학공업에 진출하여 대규모 독점적 재벌그룹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그래서 국내 주요 재벌들은 정부가 제시한 육성계획중 자기 그룹에 적합한 부문을

전남지역 제조업의 존립기반과 입지특성

선택하여 중화학공업에 적극 진출하였다²⁾. 이를 통해 기존 대기업은 중화학공업으로 진출하여 업종을 다각화함으로써 불확실한 경제적 상황에 대응할 수 있었고, 수평적, 수직적 통합을 이루어 시장거래보다는 내부거래를 통해 독점적 지배와 이윤을 획득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기업은 합병 및 인수를 통해 자본집중을 이루었다. 중화학공업은 진출 초기에 노동집약 중심의 가공무역형 조립공업에서 출발하여 점차 부품과 원료업종으로 다각화하고, 계열화하면서 수직적 통합을 이루고 자기완결적 일관생산체제를 갖추었다. 그리고 핵심부품은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참여하고 발전할 수 있는 통로가 차단된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오늘날 소수 독점적 재벌기업이 우리나라 경제를 지배하게 되었다.

독점적 재벌기업으로의 성장에 따라 기업조직이 확대되고, 각 계열기업의 본사는 그룹 총본사 안에 통합되고, 본사는 대부분 서울에 입지하게 되었다. 그리고 생산공장은 포드주의 대량생산 시스템으로서 다공장화 되었다. 이들 생산공장은 에너지, 용수, 용지 다소비형 공업으로서 국가가 대규모 공장 용지와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확충해 주었다. 따라서 70년대 우리나라의 공업입지 패턴은 공단건설에 의한 계획입지였으며, 따라서 새로운 공업도시가 발달하여 특정지역에 독점적 산업공간을 형성하였다. 특히 독점적 재벌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합작투자 및 기술과 자본재의 미·일 의존은 독점적 산업공간이 주로 영남권에 형성되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한국의 중화학공업 발달이 수출주도형 가공무역을 기반으로 하여, 수출입의 대부분이 미국과 일본이었음을 고려할 때, 지정학적 위치에서 동남임해지역일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처럼 1960년대 이후 국가주도의 미·일 의존적인 대외지향적 경제개발정책은 서울로부터 원거리로 위치하고 한·미·일 교역 중심의 국토공간 축에서 벗어난 전남지역이 수도권과 동남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될 수 밖에 없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리고 국가주도의 성장정책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정부의 지역투자도 수도권과 영남권에 편중되어 호남권은 경제활동을 촉진시키는

고속도로, 항만, 공항, 철도 등 주요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확충하지 못했으며, 이는 기업입지를 가로막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표 1). 또한 우리나라는 정책금융에 의해 기업과 산업이 발전해왔는데, 전남지역에 대한 정책자금의 배정비율은 매우 낮았다. 1983~91년까지의 한국은행과 산업은행이 취급한 정책금융 가운데 전남지역에 대출된 평균 비중은 전체 대출금의 1.7%와 1.9%에 불과하며, 산업은행의 재정자금 대출액도 1.4%에 불과하였다(표 2).

표 1. 정부의 지역별 투자사업비중(1977~91) (단위:%)

구 분	1977	1982	1986	1991
전 국	100.0	100.0	100.0	100.0
수도권	32.4	36.2	43.5	40.8
영남권	29.8	29.1	26.4	25.5
호남권	17.5	16.7	13.0	15.5
(광주·전남)	(10.5)	(10.9)	(8.5)	(10.1)
충청권	13.2	10.0	10.4	11.3
기 타	7.1	8.0	6.7	6.9

자료 : 내무부, 지방재정연감, 각년도.

주 : 각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수치의 비율임.

표 2. 정책자금대출의 지역별 분포 (단위 : %)

구 분	한국은행 대출금	산업은행 대출금	
		총 계	재정자금
서울	75.5	69.8	69.1
인천·경기	4.4	3.2	3.2
부산	7.3	9.6	12.8
경남	2.8	7.3	6.9
대구·경북	4.6	3.7	3.0
대전·충남	1.2	2.4	1.9
충북	0.8	0.7	0.4
광주·전남	1.7	1.9	1.4
전북	0.8	0.9	0.8
강원	0.4	0.7	0.5
제주	0.3	0.0	0.0
계	100.0	100.0	100.0

자료 : 한국은행, 지역금융통계, 각년도; 통계청, 지역통계연보, 각년도.

주 : 지역별 구성은 1983~91년의 평균비율임.

이처럼 산업자본이 형성되지 못한 전남지역에서는 직업을 구하기 위해 인구가 타지역으로 급격히 유출되고, 30년 동안 계속된 인구 감소는 정주기반시설을 더욱 낙후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³⁾. 광주·전남의 인구는 1970년에 397.1만명으로써, 전국인구의 12.6%(면적은 12.4%)를 점하였던 것이 1995년 말에는 347.4만명으로써 전국인구의 7.6%를 차지하는 절대적인 감소를 나타냈다.

산업구조면에서도 전남은 1차산업의 비중이 높은 후진성을 보인다. 취업자수를 기준으로 할 때 1차산업이 46.0%로 전국의 13.6%에 비해 매우 높고, 제조업의 경우 11.3%로 전국의 23.7%보다 훨씬 낮아 전국의 시·도 가운데 제주도 다음으로 낮은 순위이다(표 3).

권에 머물렀으며, 1992년에는 85.3으로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표 4). 일반적으로 노동생산성은 2·3차산업에서 높고, 1차산업에서 낮으며, 또한 노동생산성의 격차가 1인당 소득의 격차와 정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낮은 노동생산성은 전남의 1인당 GRP가 1970년대까지 전국에서 하위권에 머무른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전국 평균소득과 비교할 때 1960년부터 85년까지는 73%~80% 선을 유지하였다. 그런데 1992년에는 전국 평균의 90.8% 수준으로 11개 시·도 가운데 6위에 올랐다(표 5). 이는 여천공단과 광양공단의 가동 때문인 것으로 간주된다. 결국 전남은 지역자본이 축적되어 있지

표 3. 취업자수 기준에 의한 산업구조 추이(1986~94)

(단위 : %)

구 분	1986			1990			1994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전 국	28.2	24.1	47.8	18.3	23.8	54.4	13.6	23.9	62.5
광주전남	53.1	11.0	35.9	39.5	13.7	46.8	33.8	12.7	53.5
광 주	5.1	17.6	77.4	10.4	20.5	69.1	6.1	14.8	79.1
전 남	65.2	9.5	25.3	51.3	9.7	39.0	46.0	11.7	42.2

자료 : 통계청, 지역통계연보, 각년도.

주 : 1986년 수치는 광주시에서 광산군이 제외된 것임.

표 4. 노동생산성 추이(1967~92)

(단위 : 천원, 경상가격)

구 분	1967	1975	1983	1991	1992
전 국(A)	101.06	806.76	4,324.32	11,164.79	12,682.13
광주전남(B)	54.76	552.88	3,088.01	9,702.54	10,813.93
B/A(%)	54.2	68.5	71.4	86.9	85.3

자료 : 경제기획원조사통계국(1984).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년도; 통계청, 도내총생산추계, 1985~92

주 : 노동생산성은 지역총생산을 취업자수로 나눈 것임.

따라서 노동생산성도 매우 낮았는데, 1967년 전국 평균의 노동생산성을 100으로 볼 때 광주·전남의 노동생산성은 54.2로 전국 평균의 절반이 조금 넘는 수준이며, 1975년과 '83년에는 전국 평균의 약 70 수준으로 상승하나 여전히 전국 최하위

못하고, 사회간접자본시설이 타지역에 비해 부족하며 정주기반시설의 낙후로 소득이 낮고, 노동의 기술수준이 낮은 저렴한 단순노동력을 보유한 주변 지역으로 특징된다.

전남지역 제조업의 존립기반과 입지특성

표 5. 1인당 GRP 추이(1960~92)

(단위 : 천원, 단 1960년은 원)

구 분	1960	1972	1978	1985	1991	1992
전 국(A)	8,343.3	541.2	940.6	4,798	4,798	5,496.0
광주전남(B)	6,060.5	423.5	711.9	1,528	4,395	4,992.5
B/A(%)	72.6	78.3	75.7	79.7	91.7	90.8
순위	10/10	10/11	10/11	9/11	6/11	6/11

자료 : 내무부(1983); 통계청, 도내총생산추계, 1985-92.

주 : 서울, 부산을 제외한 광역시는 도에 포함시켜으며, 60년 통계에서는 부산을 경남에 포함. 1972년(불변가격)과 1978년(80년 불변가격) 나머지는 경상가격임.

3. 전남지역 중·소제조업의 입지특성과 변화

1) 개별입지 중·소제조업의 입지적 존립특성

전남지역의 제조업 존립을 위한 공간의 선행적 특성 때문에 근대적 제조업이 발전하지 못하고, 대부분의 제조업이 농수산물 원료와 지역시장에 기반한 단순노동 중심의 영세한 중소기업으로 존립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공장은 원료산지나 생활중심지에 산재하는 입지패턴을 보이고 있다. 1995년에 전라남도에서 발간한 「제조업체 현황」 명부를 토대로 개별적으로 입지하고 있는 제조업체를 추적한 결과, 이들 기업은 1,777개 업체이며 전체 기업의 78.4%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업종은 농수산물 가공품 중심의 음식료품과 레미콘, 벽돌 등 건축자재의 비금속, 건축물 및 철구조물 등 조립금속, 그리고 합성수지 및 고무 프라스틱 등의 화학업종으로서 전통적 생산기술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표 6).

공간적인 측면에서 제조업의 구성을 도시와 농촌지역으로 구분하고, 농촌지역을 대도시근교지역과 내륙지역, 그리고 해안지역으로 다시 구분하여 그 특징을 살펴 본 결과, 중소도시와 광주시 인근 지역은 타지역에 비해 업종이 다양화된 편이나, 내륙지역은 비금속과 음식료업종이 주류를 이루고, 해안지역은 수산물가공의 음식료업종으로 단순화되어 있다. 광주대도시 주변지역과 중소도시지역은 음식료, 비금속 외에도 농수산업 중심의 지역산업을 위한 장비 및 생활기자재의 조립과 수선을 담당하기 때문에 내륙의 타지역에 비해 제조업의 업

종구성이 다양하게 구성되었다. 그러나 내륙 농촌 지역은 군단위에서 필요한 건축자재(골재, 벽돌, 레미콘)와 쌀 가공을 위한 정미업 등이, 해안지역은 수산물 가공과 일부 선박제작·수리업 등이 경제생활의 중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 구성이 단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개별입지 기업은 규모 및 제조활동의 행태로 보아 소매점 입지와 같이 소비지를 중심으로 분산되어 있으며, 특히 농수산물 가공업은 제조기능보다는 가공도가 낮은 보관 및 건조지원기능이 강하여 생산지에 입지하고 있다. 이들의 입지는 전통적으로 지역의 소생활권에 기반을 두고 지역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 재제소, 시멘트 관련제품, 정미소, 양조장, 건조가공장 등이 대표적인 공장이다. 결국 개별입지 기업은 지역의 공업화에 따른 결과라기 보다는 비공업지역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전통적 생산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존립하고 있는 특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2) 지방공단 및 농공단지 중소제조업의 특성

전반적으로 비공업화된 공간적 특성을 갖는 전남지역에서 공업단지 개발은 기존의 산업구조를 크게 변화시키지 못했다. 1970년에 「지방공업개발법」과 1983년에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을 제정하여 지방 중·소도시의 공업육성 및 공업생산

표 6. 개별입지 공장의 시·군별 주요 업종현황(1994)

(단위 : 개, %)

구 분	사업체수	개별입지	비 중	주 요 업 종
전 남	2,267	1,777	78.4	음식료품, 비금속, 조립금속, 석유화학
목 포 시	166	87	52.4	음식료품, 비금속, 산박수리
여 수 시	131	101	77.1	음식료품, 선박기계 수리, 철구조물
순 천 시	137	104	75.9	비금속, 음식료품, 석유화학, 철구조물
나 주 시	187	136	72.7	음식료품, 비금속, 석유화학, 조립금속
여 천 시	66	11	16.7	음식료품
광 양 시	94	45	47.9	식품, 비금속, 철구조물
담 양 군	160	131	81.9	비금속, 음식료, 석유화학, 조립금속
화 순 군	116	83	71.6	섬유, 비금속, 음식료품, 석유화학
장 성 군	79	67	84.8	비금속, 섬유, 종이, 기타, 음식료품
영 광 군	32	26	81.3	비금속, 음식료품
합 평 군	59	31	52.5	비금속, 음식료품
무 안 군	116	72	62.1	음식료품, 비금속
영 압 군	91	66	72.5	음식료품, 비금속
곡 성 군	37	34	91.9	비금속, 음식료품
구 례 군	21	13	61.9	음식료품, 비금속
보 성 군	52	52	100	음식료품, 비금속, 석유화학(프라스틱)
장 흥 군	100	100	100	식품(해태)
강 진 군	60	60	100	식품, 비금속
해 남 군	97	97	100	식품
완 도 군	255	255	100	식품(미역)
진 도 군	16	16	100	식품
신 안 군	13	13	100	식품
여 천 군	71	71	100	수산물가공 식품, 비금속, 선박수리
고 흥 군	111	106	95.5	수산물가공 식품, 비금속, 선박수리

자료 : 전라남도(1995).

주 : 상기의 수치는 1994년말에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기발행된 통계연보의 수치와는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기반을 확대하고, 농촌지역의 유희노동력을 활용하여 농어민 소득과 지방자립을 위한 경제력을 제고 시키려는 목적으로 소규모 공단들을 조성하였다.

그러나 지방공단의 경우, 지원혜택을 유인으로 도시지역에 산재된 중·소공장을 집단화하는 효과만을 얻고, 지방의 자립경제에는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1972년부터 목포, 여수, 순천, 나주에 지방공단이 조성되었으나 규모면에서 매우 영세할 뿐만 아니라 입주업체도 개별적으로 입지하고 있는 공장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전근대적인 생산기술과 영세성으로 인해 경쟁력이 취약하고 지역경제

를 이끌만한 생산구조를 갖고 있지 못하다. 1994년 현재 이들 공단이 전남공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종업원수의 6.9%, 생산액의 2.8%에 불과하다.

목포공단의 경우 44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으나 5개 업체가 휴업중에 있으며, 종업원 300인 이상의 대기업은 도자기를 생산하는 행남사와 어망로 프롤 생산하는 남양어망뿐이고, 대부분의 업체들이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며, 20인 미만의 소기업도 21개 업체에 이른다. 또한 수산물가공이나 양곡가공(정미소)업이 24개 업체에 이르러 전근대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공단 전체의 종업원수는

전남지역 제조업의 존립기반과 입지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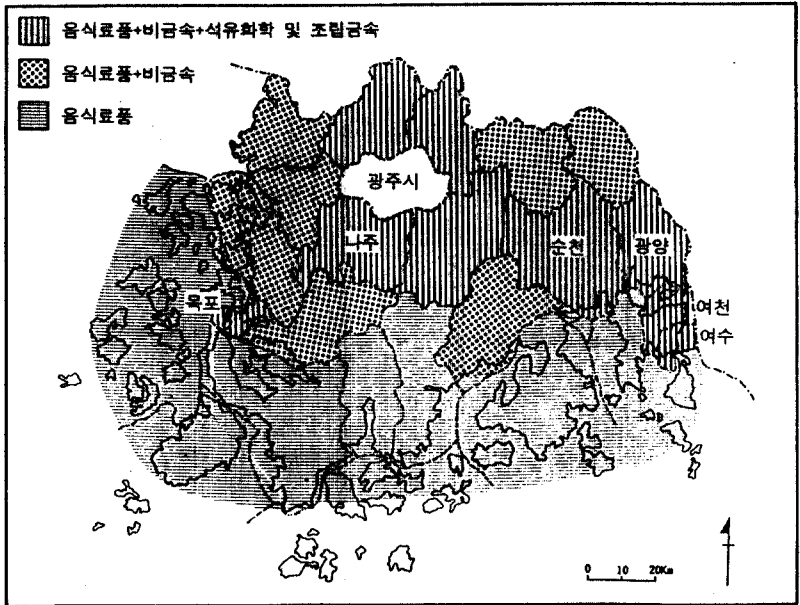


그림 1. 개별입지 공장의 업종구성에 의한 공간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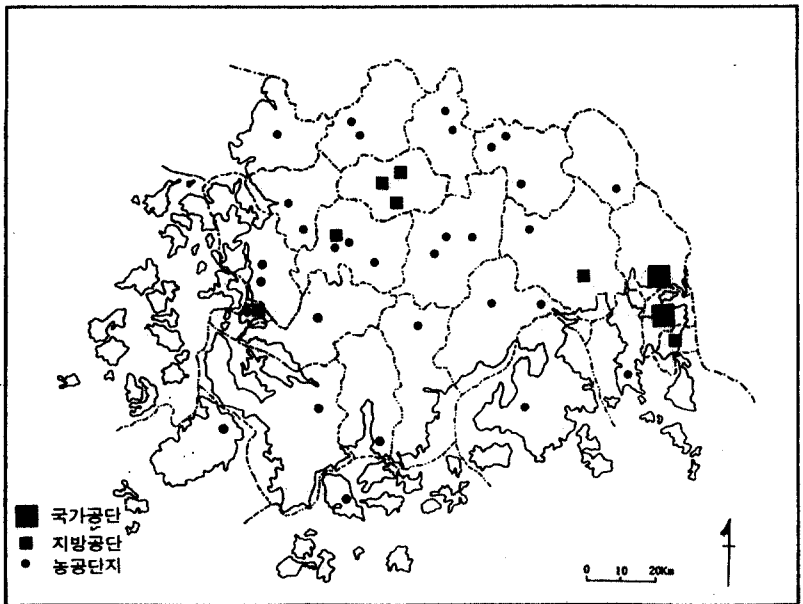


그림 2. 공업단지의 지리적 분포

2,889명이고, 생산액은 1,583억원에 불과하여 일개 대기업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여수오천공단은 29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으나 4개 업체가 휴업중이다. 전업체가 영세한 취치포 가공 및 어분, 연육 생산업체로 제품수요의 변화에 따라 공장운영이 매우 불안정하며, 93년에는 수요의 감소로 45%가 가동을 중단했었다. 종업원은 829명, 생산액은 196억원에 불과하며, 업종 대체가 시급한 상황에 놓여 있다. 순천공단은 18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으며, 가동중인 15개 업체가 주로 철구조물, 식품 등으로 구성되고 모두 중소기업이다. 종업원은 878명에 생산액은 1,550억원에 이른다. 나주문평공단도 8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으나 모두 중소기업으로서 식품 3개 업체, 화학 3개 업체, 기타 2개 업체로 구성되고 종업원은 414명, 생산액은 764억원으로 나타났다(표 7).

이처럼 지방공단에 입지한 제조업은 대부분 영세한 중소기업으로서 1992년에 비해 업체수와 종업원수가 감소하여 외부의 경제환경에 민감한 편이며, 주로 도시지역 시장에 의존하고 업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 농어촌지역에 14개 단지가 조성되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고용된 종업원수는 9,695명으로서 1994년도 전남 제조업체 종업원수의 13.3%로 업체수 비중 15.0%보다 낮고, 1993년에 전남 생산액의 5.8%를 점하여 개별입지 기업과 마찬가지로 매우 영세함을 알 수 있다(표 8). 그러나 휴·폐업률이 1993년에 22.8%(75개 업체)에서 '94년 상반기에는 26.7%에 이르러 전국 평균(15%)보다 월등히 높고, 시·도 가운데 가장 높다.⁵⁾ 이와 같이 많은 업체가 휴·폐업하는 것은 업종, 기술, 시설, 규모, 경영 측면에서 대부분 경쟁력이 낮은 업체로 구성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설문조사에 의해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생산, 조직, 노동구조의 특성을 살펴보면, 업종은 기계·금속이 23.8%, 화학 19.2%, 식품 10.5%, 전기·전자 7.0%, 섬유·봉제 6.0%, 석재를 포함한 기타 33.5%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석재, 레미콘, 아스콘, 벽돌공장 등 부가가치가 낮은 기타 업종의 비중이 높은 것은 전통적인 토착공장이 농공단지에 많이 입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농공단지 입주업체들 중 생산된 제품들은 원자재나 반제품보다

표 7. 지방공단 현황(1994년)

(단위 : 천㎡, 개, 명, 억원)

공단명	총면적	분양면적	입주업체	가동업체	종업원		생산액	
					1992	1994	1992	1994
목포공단	459	369	44	39	3,867	2,889	-	1,583
여수오천	222	136	29	25	523	829	213	196
순천공단	583	469	18	15	1,386	878	1,203	1,550
나주문평	323	249	8	7	398	414	643	764
계	1,587	1,216	99	86	6,190	5,010	-	4,093

자료 : 대한상공회의소(1995).

농공단지의 경우 1994년말 현재 전남에 지정된 단지수는 33개 단지이며, 면적은 172만평에 이른다. 입주업체는 모두 517개 업체이며, 이들 중 374개 업체가 가동하고 있다. 이들 농공단지의 공간적 분포는 대규모 공업지역과 인접한 일반농어촌지역에 2개 단지가 조성되고,⁴⁾ 광주 주변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추가지원 농어촌지역에 17개 단지, 그리고 전남 중남부 및 도서지역을 포함한 우선지

는 완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80%에 이르며, 대체로 가공도가 낮은 단순 제품들이다. 이는 대기업과 연계성이 낮아 자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50% 이상을 대기업에 납품하는 업체는 26%에 불과하며, 나머지 대부분은 중소기업, 시중대리점,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처럼 시장판매 비율이 높은데다 KS 및 품자 미확득, 농공단지 제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부족 등은 제품의

전남지역 제조업의 존립기반과 입지특성

판매부진 및 가격의 하락요인이 되고 있다.

기술개발에서도 70% 이상의 업체가 동종업체간 정보교환이나 문헌정보를 통해 이루어지고, 대기업이나 외국기업과의 기술협력 등은 매우 소극적이

술인력은 물론 단순노무직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⁸⁾ 더구나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영세성과 불안정성으로 인한 부정적 인식과 열악한 농촌생활 환경으로 기능 및 기술인력이 현지 농공단지

표 8. 농공단지 입주업체 현황(1994년)

(단위 : 개, 명, 억원)

구 분	입주업체 현황				고용 현황	
	계	가동	건설중	준비중	총고용	현지인
계	517	374	67	76	9,695	6,277
일반농어촌	63	49	5	9	1,620	1,559
우선지원농어촌	102	61	24	17	2,744	2,346
추가지원농어촌	352	264	38	50	5,331	2,372

자료 : 전라남도(1995).

다. 이는 자본의 규모가 영세한데다 판매난까지 겹쳐 기술개발 및 생산시설에 투자할 여유가 없으며, 생산제품이 단순한 품목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규모의 영세성으로 인한 담보조건이 까다로워 신용대출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처럼 농공단지 입주업체는 판매난과 자금난이 상호 증첩되어 악순환은 계속되고, 생산가동의 어려움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농공단지에 입지한 기업중 종업원수 200인 이상의 업체는 5개에 불과하고, 50인 이하의 중소기업이 90%에 이르며, 20인 이하의 소규모 업체도 50%를 점하고 있다. 그리고 이전업체나 분공장(각각 83개 업체, 42개 업체로서 총분양업체의 25.8% 차지)보다는 대부분 창업업체⁶⁾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창업기업은 대기업 및 타기업과의 협력관계가 미흡하고 생산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부족 때문에 성장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편이다. 더구나 영세한 업체일수록 기업경영이 미숙하고, 기술개발 및 생산시설에 대한 투자보다는 숙련도가 낮은 노동력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경영행태를 보인다. 그러므로 경기변동이나 시장여건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⁷⁾

노동구조를 보면, 현지 고용효과가 전체 고용효과 8,544명 가운데 69%(5,786명)를 차지하여 농촌지역의 취업기회가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농현상과 고령화추세로 인한 기능 및 기

입주업체보다는 대도시나 대규모 공업지역에 있는 대기업체를 선호하는 경향이 높다. 현지 취업인은 대부분 단순노무직으로서 농번기에 잦은 결근과 높은 이직률을 보여 공장가동에 큰 차질을 가져다 준다. 그리고 현지인의 단순노무직 고용구조는 농촌구조개선과 영세농민의 전업이라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스럽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지방공단 및 농공단지에 입지하여 존립하는 원인은 경쟁력이 취약한 저가공 단순제품을 생산하고, 창업당시 자기자본비율이 낮아 외부지원에 의존도가 큰 취약한 재무구조를 지닌 업체로서 도시외부경제 효과보다는 저렴한 단순노동력과 지가, 세제혜택, 금융지원 등 정책적 지원이 크게 작용했다. 특히 공단 분양후에 기대되는 지가상승 효과도 저변에 작용한 것으로 사료된다.

3) 중소 제조업의 공간적 입지변화

전남지역에서 중·소제조업체의 입지변화는 지방공단과 농공단지가 조성되고 대기업이 본격적으로 입지하기 시작한 1985년 이후부터라고 볼 수 있다. 1985~94년 동안에 제조업체수는 69%가 증가한 반면, 종업원수는 57% 증가하여 영세한 중·소업체가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전남 제조업에서 각 시·군이 점유한 비중의 변화를 보면, 국가공단 조성에 의해 공업도시로 성장한 여천시

와 동광양시의 비중이 크게 증가한 반면 다른 4개 도시지역에서는 크게 감소하였다. 군지역에서는 광주대도시 주변지역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내륙 농촌지역에서는 무안군 등 일부지역에서만 증가를 보였다(표 9). 이들 지역의 제조업 증가는 대도시 인접지역의 입지적 이점을 이용하여 중·소제조업체의 개별적인 입지와 1985년 이후 농공단지 조성에 의한 것으로 기인된다. 전체 농공단지

33개 가운데 15개 단지가 나주시·군과 담양, 장성, 화순, 무안, 함평군 등 7개 시·군에 분포되어 있다.

그리고 신안군에서 광양군까지 서남해안에 접한 10개 군지역은 1985년에 748개 제조업체가 입지하여 전체 제조업체의 50.6%를 차지하였으나 1994년에는 1,052개 업체가 입지하여 42%로 그 비중이 감소하였다. 반면 종업원수의 비중은 1994

표 9. 전남지역의 시·군별 제조업 변화

(단위 : 개, 명, %)

구 분	사 업 체 수		종 업 원 수	
	1985	1994	1985	1994
계	1,478 (100)	2,497 (100)	46,274 (100)	72,683 (100)
목포시	125 (8.5)	184 (7.4)	6,115 (13.2)	6,410 (8.8)
여수시	126 (8.5)	148 (5.9)	6,176 (13.4)	3,471 (4.8)
순천시	79 (5.4)	57 (2.3)	1,286 (1.3)	83 (1.1)
나주시	24 (1.6)	54 (2.2)	962 (2.1)	1,523 (2.1)
여천시	30 (2.0)	89 (3.3)	5,629 (12.2)	11,202 (15.4)
동광양시	2 (0.1)	43 (1.7)	122 (0.3)	10,818 (14.9)
담양군	40 (2.7)	174 (7.0)	1,692 (3.7)	4,343 (6.0)
장성군	27 (1.8)	70 (2.8)	1,807 (3.9)	2,581 (3.6)
화순군	40 (2.7)	106 (4.3)	819 (1.8)	2,218 (3.1)
나주군	31 (2.1)	107 (4.3)	623 (1.4)	2,889 (4.0)
영광군	42 (2.8)	58 (2.3)	370 (0.8)	720 (1.0)
곡성군	16 (1.1)	41 (1.6)	567 (1.2)	2,451 (3.4)
함평군	28 (1.9)	48 (1.9)	467	1,226 (1.7)
무안군	32 (2.2)	104 (4.2)	409 (0.9)	1,967 (2.7)
영암군	30 (2.0)	60 (2.4)	902 (2.0)	1,481 (2.0)
구례군	20 (1.4)	27 (1.1)	202 (0.4)	302 (0.4)
송주군	38 (2.6)	75 (3.0)	1,251	1,992 (2.7)
광양군	56 (3.8)	56 (2.2)	308	986 (1.4)
여천군	22 (1.5)	93 (3.7)	2,461 (5.3)	2,099 (2.9)
고흥군	96 (6.5)	126 (5.1)	818 (1.8)	2,071 (2.9)
보성군	45 (3.1)	43 (1.7)	310 (0.7)	779 (1.1)
장흥군	32 (2.2)	78 (3.1)	814	887 (1.2)
강진군	62 (4.2)	66 (2.6)	494 (1.1)	957 (1.3)
해남군	42 (2.8)	85 (3.4)	628 (1.4)	1,014 (1.4)
완도군	131 (8.9)	310 (12.4)	8,929 (19.3)	5,847 (8.1)
진도군	89 (6.0)	107 (4.3)	1,359 (2.9)	982 (1.4)
신안군	173 (11.7)	88 (3.5)	1,020 (2.2)	684 (0.9)

자료 :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주 : *는 광업 1개업체의 종업원이 포함된 수치로 비중을 계산하지 않았음.

행정구역은 통합이전을 고려함.

전남지역 제조업의 존립기반과 입지특성

년에 16,306명으로 전체의 22.4%만을 점하여 매우 영세한 업체임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완도군의 경우 제조업체수는 전남 전체의 12.4%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비중을 점하고 있으나 종업원수는 8.1%에 불과하여, 이들이 주로 해안지역에 입지한 수산물가공 소기업체들임을 알 수 있다.

공간적인 측면에서는 대도시 주변지역에서부터 변화를 보이는데 그것은 석유화학, 1차금속, 조립금속으로 다양화되고 전통 토착산업인 음식료업종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반면 내륙농촌지역은 대도시 주변지역과 유사한 변화패턴을 보이는데 그 정도가 낮고, 비금속의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해안지역은 기존의 수산물가공 음식료업종이 절대 다수를 점하는 상태에서 비금속업종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 지역에서 제조업의 입지변화는 양식업의 경기변동에 따라 음식료업종이 시·군간의 상대적 증감의 차이를 나타낸다.

황기에 주택 등의 건설사업 증가로 인한 건축자재의 수요와 관련이 큰 것으로 생각된다(표 10).

결론적으로 전남지역에서 중·소제조업의 산업구조 변화는 음식료품 → 음식료품+비금속 → 음식료품+비금속+석유화학 및 조립금속 제조업으로 다각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공간적인 입지패턴은 대도시 주변지역으로부터 내륙농촌지역, 해안지역으로 점차 확대 이행되고 있다.

4. 독점적 대기업의 존립과 입지특성

독점적 재벌의 지배구조하에서 전남지역에 입지한 종업원 300인 이상의 대기업은 24개 업체로서 종업원수가 27,495명이며, 이는 전남 전체 종업원수의 37.8%를 점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해방이후 전남지역에서 자본을 축적하여 성장한 기업과 재벌기업의 계열공장인 외래기업으로 구분된다. 전

표 10. 주요 시·군별 업종구조(1994년)

(단위 : %)

구 분	음식료	섬유	목재	종이	석유화학	비금속	1차금속	조립금속	기타
전 남	42.0	3.8	4.9	2.0	11.4	16.2	2.0	13.6	4.2
여 천 시	10.6	-	-	-	59.1	12.1	-	10.6	7.6
동광양시	9.6	-	1.1	-	5.3	31.9	9.6	34.0	8.5
담 양 군	13.8	5.6	14.4	3.8	18.1	18.8	1.3	23.8	0.6
화 순 군	12.9	20.7	9.5	3.5	12.9	19.8	1.7	15.5	3.5
합 평 균	15.3	1.7	6.8	5.1	25.4	30.5	-	11.9	3.4
무 안 군	30.2	5.2	6.0	3.5	9.5	25.9	4.3	12.9	2.6
완 도 군	93.7	-	-	-	3.1	1.2	-	-	2.0
고 흥 군	55.9	0.9	3.6	0.9	1.8	27.0	-	9.9	-

자료 : 전라남도(1995).

이러한 입지패턴은 도시지역, 대도시주변지역, 내륙농촌지역, 해안지역 등 4개 지역에서 각각 제조업 성장이 가장 큰 2개 시·군을 선정하여 업종구조를 비교하고, 공장 준공일을 기준으로 시계열적으로 분석해보면, 1980년 이전에 설립한 공장은 대체로 음식료품업체가 많았으며, 1980년대 후반에는 비금속업체, 최근에는 석유화학, 조립금속업종이 높은 설립비율을 점하고 있다. 특히 1980년대 후반에 비금속업체의 설립은 부동산경기의 호

자는 금호, 삼진물산, 남양, 행남사, 조선내화, 전방군계, 고려시멘트 등 토착 대기업이다(표 11). 금호를 제외한 이들 기업의 특성은 다각화가 되지 않은 단일 기업들로서 주로 지역의 원료자원과 관련되어 목포, 광양, 장성, 담양에 개별입지 형태를 보이고, 주로 완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반면 외래기업은 기초소재를 생산하는 기업으로서 독점기업의 수직적 계열기업이거나 분공장 형태로 국가공단에 입지하고 있다. 많은 계열기업 중

심의 업종다각화를 특징으로 하고 있는 재벌기업은 안정적인 원료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리고 계열기업내 수요를 기반으로 내수와 수출을 병행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에 원료공급을 통한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독점적 재벌기업은 석유화학 및 철강산업에 계속 참여하고 규모를 확대하여 울산과 포항에 이어 제2석유화학 콤비나트와 제철소가 광양만권에 형성된 것이다(표 12).

따라서 이들 대기업의 입지요인은 저렴하고 풍부한 용지와 수입, 수출에 따른 항만시설 등이며, 생산과정이 포드주의 생산시스템으로서 기술노동력보다는 숙련기능공 및 단순인력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다.

여천공단의 경우, 1994년 현재 66개 업체가 가동하고, 종업원 12,173명이 연간 7조 8,026억원을 생산하며, 43억 달러를 수출하고 있다. 이 가

표 11. 대기업의 분포현황(1994)

지역	기업명 (종업원수, 생산품목)	총종업원수
목포	삼진물산 (340, 통조림), 남양 (529, 로프어망) 행남사 (1,346, 도자기)	2,215
여수	한화 (851, 화약류)	851
나주	럭키 (364, 옥탄올의 16종)	364
여천	남해화학 (1,061, 암모니아, 요소), LG정유 (1,183, 유틸) 대림산업 (2,297, 합성수지), 한양화학 (1,002, 합성수지) LG화학 (1,752, 합성수지, VCM, SM, 카본블랙), 호남석유화학 (772, 합성수지), 제일모직 (626, 합성수지) 금호석유화학 (324, 합성고무), 금호셀화학 (620, 페놀, 아세톤) LG석유화학 (522, 에틸렌, 프로필렌)	10,159
광양	조선내화 (319, 내화물), 포항로공업 (437, 연와보수), 삼정공업 (662, 강철), 포항제철 (8,520, 냉열연, 코일) 포철기연 (742, 공작철물)	10,680
담양	전방군제 (436, 매리야스)	436
곡성	금호 (1,890, 타이어)	1,890
영암	전방 (575, 면방직)	575
장성	고려시멘트 (325, 시멘트)	325
계	24개 기업	27,495

자료 : 전라남도(1995).

따라서 여천과 광양지역에 재벌기업의 대규모 분공장이 집적되어 있는 것이다. 광양만권은 농업 중심의 해안지역으로써 항만과 대규모 간척지 매립을 통한 공장용지 확보가 가능한 곳이다. 또한 기존 중공업 지역인 동남임해지역과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아울러 중앙정부의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에 따라 독점자본이 초과이익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이다.

운데 종업원 300인 이상의 대기업이 10개 업체이며, 이들은 국내 굴지의 그룹 계열기업으로서 60년대 후반에 건설된 호남정유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제4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기간인 70년대 후반에 건설되었다. 이는 70년대에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과 기업설비투자 제1확장기로서 대기업이 신규 분공장을 건설하고 생산규모를 확대했기 때문이다.

전남지역 제조업의 존립기반과 입지특성

따라서 여천공단에 입지한 재벌기업의 계열공장 본사는 대부분 서울에 있으며, 이로 인해 고용효과는 사무직보다 생산직에서 크게 나타날 수 밖에 없다. 10개 대기업에서 고용한 종업원수는 여천공단 종업원수의 83.5%를 점하고 있다. 그리고 주요 생산품은 비료, 유류, 에틸렌, 합성수지이며, 생산액은 86.1%, 수출은 84.0%를 점하여 대기업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여천공단이 전남 제조업에 기여하는 비중을 1994년 통계치를 비교하면 53%에 이르는 생산액과 54%의 수출액에 비해 고용효과는 16.8%로 낮게 나타났다(표 13). 이는 여천공단에 입지한 산업이 조립산업보다는 장치계 자본집약적 산업으로 1인당 노동생산액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다. 즉 여천공단을 타국가공단과 비교할때 생산액에서는 뒤지지 않지만 지역발전 파급효과 측면에서 중소기업 성장과 고용촉진에는 크게 뒤지고 있다. 이는 결국 석유화학의 특화에 따른 연관산업이 미흡함을 입증하는 것이다(표 14).

또한 이들 공장은 다에너지, 다용수 산업으로서 환경오염이 심각하게 발생되고, 인간이 거주할 수 없는 공간으로 변모되고 있다(한국과학기술연구원, 1996).

광양제철연관 공업단지는 광양제철소 입지에 따라 관련지원 및 후방연관산업의 유치를 위한 공업단지로 조성되었다. 1970년대초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책의 일환으로 포항제철소가 착공된 이후 1981년까지 4기설비가 준공되어 연산 850만톤의

표 12. 여천, 광양공단의 전남제조업 기여비중(1994년) (단위 : 명, 억원, 백만불)

구 분	종업원수 (%)	생산액 (%)	수출액 (%)
전 남	72,683 (100)	146,692 (100)	4,245 (100)
여천공단	12,173 (16.8)	78,026 (53.2)	2,305 (54.3)
광양제철	8,520 (11.7)	35,619 (24.2)	1,553 (36.6)
연관공단	6,106 (8.4)	7,007 (4.8)	34 (0.8)

자료 : 통계청(1996),
대한상공회의소(1995).

표 13. 주요 국가공업단지 현황비교(1994년) (단위 : 개, 명, 억원, 백만불, 천㎡)

공업단지	가동업체수	주요업종	고용인원	생산액	수출	분양면적
여천공단	66	석유화학	12,173	78,026	2,305	14,277
구미공단	289	섬유, 조립금속	67,997	97,467	7,311	12,672
창원공단	361	조립금속	73,797	103,889	2,691	15,955
울산미포	297	화학, 금속 기계	105,056	239,833	10,439	26,047

자료 : 대한상공회의소(1995).

이와 같은 국내 주요 대기업의 입지는 전남 제조업 생산의 50% 이상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중소기업과 연관관계를 전혀 갖지 못함으로써 지역의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여천공단이 석유정제와 관련된 1, 2차 가공의 소재산업단지로 특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성은 타국가공단과 비교함으로써 입증된

조강능력을 갖추었지만, 철강수요의 증대에 따라 제2공장으로 광양제철소를 1985년에 착공하였다. 제4기설비가 준공된 광양제철소의 조강능력은 1,140만톤에 이른다. 또한 광양제철소에서 고용하고 있는 종업원은 '94년 현재 8,520명에 달해 단일공장으로서 많은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생산액은 3조 5,619억원이다. 이는 전남 제조업 중

업원수의 11.7%, 생산액이 24.3%를 점하여 단일기업으로서는 전남에서 가장 큰 규모이다. 그러나 연관공단은 종업원 8.0%, 생산액 3.4%, 수출액 0.5%를 점하여 지역경제에 미치는 기여도는 낮은 편이다(표 13).

광양제철에 원자재를 공급하는 장기계약 기업을 보면, 이 지역 기업은 전체 65개 업체중 13개 업체이며, 매출액도 전체의 3.8%(72억원)에 불과하다. 또한 협력업체도 23개 업체중 13개 업체만이 지역기업이고, 나머지는 포항 등에 본사를 둔 업체들이 자회사 형식으로 진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대규모 기업이 입지하고 있을지라도 그와 연관된 전후방산업은 매우 빈약하다.

한편 광양제철 연관공단인 광양공단의 입주기업 65개 업체중 61개 업체가 가동중이며, 종업원은 6,106명, 생산액은 7,007억원이다. 종업원 300인 이상의 대기업은 조선내화, 포항로공업, 포항기연 등 비금속공업의 내화물과 공작철물, 전기기기 등 광양제철소의 지원산업체들이다. 그 밖의 중소기업은 대부분 시멘트, 레미콘 등 비금속과 철구조물과 가스, 고무 등 일부 화학제품 그리고 유통공급, 운송 등 서비스업이다. 이는 전후방연관산업단지라기 보다는 광양제철소 지원산업단지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타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최종조립공업이 다른 지역에 입지하여 부품 및 기계금속 등의 제철 후방연관산업이 광양제철소 근접입지보다는 최종조립산업에 근접인지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전남지역에 입지한 독점적 외래기업은 수도권과 영남권에 입지한 모기업 및 연관 중소기업과 연관성이 높고, 전남지역은 연관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 기업의 본사는 서울에 있으며, 생산제품 및 생산구조의 특성상 전남지역의 공업발전과 변화를 촉진시키지 못하고, 또한 지역내 중소기업 및 대기업과의 연관효과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입지에 따라 파생되는 산업집적효과를 가져오지 못했다⁹⁾.

이와 같이 독점적 재벌기업 조직구조에서 대량생산의 자본집약적 계열기업 또는 분공장은 주로 1차적인 산업소재 원료 가공으로서 해외 의존 및 용지, 용수, 에너지다소비의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

문에 주변지역의 해안지역에 입지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주변지역의 공업을 특정 업종으로 특화시키고, 지역의 증충적 공업발전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6. 결 론

국가주도의 대외지향적 경제개발을 추진한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산업공간은 수도권과 영남권으로 압축되었다. 반면 서남단에 위치한 전남지역은 주변지역으로 머물게 되었다. 이처럼 전남지역이 제조업의 입지 측면에서 주변지역으로 남겨진 공간의 선행성과 그러한 입지적 기반에서 중소기업과 독점적 대기업의 존립특성을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자본주의 발달과정에서 전남지역의 선행적 특성은 지역자본이 축적되지 못했으며 지리적으로는 수도권과 미·일 교역의 공간축에서 벗어나 사회간접자본시설 및 정주기반시설이 낙후되고 이로 인해 생산자본 및 인적자본이 유입되지 못했다.

이러한 공간적 기반위에서 전남지역의 제조업은 전자본주의적 성격이 강한 농수산물 관련 음식료품과 비금속업종 등의 영세한 중소기업이 지역시장을 토대로 주변부적인 전통적 토착산업으로 광범하게 존립하고 있다. 이들 제조업은 공간적으로 서로 다른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것은 업종구성에 있어서 중소도시지역 및 대도시주변지역이 다양화된 반면 내륙농촌지역 및 해안지역은 단순화되어 있다. 그러나 제조업의 업종구성이 영세한 음식료, 비금속 업종 중심에서 점차 기술수준이 낮은 노동집약적 조립금속 및 화학업종으로 다양화되고 있으며, 공간적으로도 이러한 다양성이 내륙농촌 및 해안지역으로 확대되는 입지변화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이미 포드주의 생산양식의 내포적 축적 단계에 이른 중심지역의 대기업 분공장이 추가로 입지함으로써 양적 측면에서 입지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이들 기업은 내부거래 및 수출중심의 생산기능으로서 모기업에 수직적 통합을 이루고 있는 철강 및 화학제품 등 공업소재 생산에 특화되어

전남지역 제조업의 존립기반과 입지특성

있다. 따라서 입지의 특성은 주변지역의 저렴한 토지 및 비숙련 또는 숙련 기능인력을 토대로 대규모 물리적 산업공간을 형성하고, 지역내 중소기업을 포섭하지 못한 채 제한적인 연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결국 전남지역에서는 전통적 입지이론으로 설명 가능한 전통적 토착산업이 원료와 지역시장을 토대로 입지하고 있으며, 기업조직 및 노동과정의 분업에 의해 설명가능한 대기업이 상호 연계성 없이 접합하여 입지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전남지역 공업화의 성격은 전통적인 토착산업의 기반위에 포드주의 생산체제의 외연적 확대에 따라 양적 중심의 공업화가 진행될 것이며, 자연환경과의 갈등 등 우리 나라 산업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계속 재생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註

- 1) 분공장입지는 지역간 균형발전에 공헌한다는 견해와 격차를 심화시킨다는 견해가 있으며, 미국에서 행한 연구결과 다지역기업의 분공장은 후진지역개발에 공헌했고, 국가내의 지역격차를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Erickson, 1983, 491-502).
- 2)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전신인 한국경제인협회는 울산공업단지를 건설에 이어 정유, 제철, 시멘트, 비료, 나일론, 합성수지, 전기기기, 케이블 제조업 등에 투자할 것을 건의하였다. 그리고 삼성은 일국의 경제발전은 단계적 과정이 있다고 보고, 70년대부터는 전기기기산업과 중화학 공업에 진출해야 한다고 건의했다(호암자전).
- 3) 대표적인 정주기반시설의 낙후로 교육여건을 들 수 있다. 전남지역에서 농촌을 떠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자녀의 교육문제를 지적했으며, 그 때문에 廢校率이 전국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 4) 일반농어촌지역 2개군, 추가지원농어촌지역 10개군, 우선지원농어촌지역 10개군으로 분류되고, 일반농어촌지정단지는 목포 산정농공단지, 여천군 화양농공단지이다. 현재 목포시는 농공단지 지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되었다.
- 5) 1994.6 기준, 전국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휴폐업률은 15%로 나타나고, 이는 91년 6.4%, 92년 10.9%, 93년 13.5%에 이어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지역별

로는 강원 18.1%, 충북 12%, 충남 8.7%, 전북 12.3%, 경남 13.4%, 전남 26.7%로 나타나 전남이 가장 높고 1993년 12월 말(22.8%)보다 크게 증가했다(통상산업부 자료).

- 6) 현재 가동중인 업체의 80%가 공장의 설립기간이 5년 미만으로 나타나 대부분 창업업체로 구성되어 있다(설문조사 결과임).
- 7) 전국 휴폐업 업체중 이를 입주유형별로 보면 이전업체가 23.6%인데 반해 창업업체가 67%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조업기간면에서는 1년 미만이 31.5%, 1-2년이 31.8%를 차지하여 휴폐업이 대부분 창업업체이거나 조업기간이 짧은 영세업체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통상산업부 자료).
- 8) 기능 및 기술인력이 부족한 업체가 54.8%, 단순노동력이 부족한 업체가 32%로 나타나 이러한 기술인력 부족은 기술개발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에 커다란 문제로 제기된다(설문조사 결과임).
- 9) 원자재 구입지역의 비중은 수입 39.7%, 수도권 18.6%, 서남권 15.2%, 영남권 9.8% 순으로 나타났으며, 생산품 판매의 경우 수출 24.7%, 수도권 32.0%, 중부권 13.7%, 영남권 12.9%로 나타나 주로 해외와 수도권에 연계성이 높고, 지역내의 연계성은 낮다(설문조사 결과임).

文 獻

-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1984, 제1차 고용구조 특별 결과조사보고.
- 고태경, 1992, 1980년대 한국자본주의 발달과 공간구조의 변화, 지리학, 27권, 3호, 232-242.
- 내무부, 1983, 주민소득연보.
- 대한상공회의소, 1995, 전국공업단지현황.
- 박삼욱, 1983, 공업입지 연구동향, 지리학의 과제와 접근방법, 석천 이찬박사회잡기념 논문집, 교학사, 169-182.
- 백 일, 1994, 한국제철구조 교체안연구, 백산서당.
- 여천시, 1996, 여천공단 주변마을 환경영향 및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이경의, 1991, 한국중소기업의 구조, 풀빛.
- 이재희, 1989, 한국대기업의 독점화과정에 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임한수, 1984, 동남해안 공업지대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지리학연구*, 10, 249-297.
- 전라남도, 1995, *제조업체현황*.
- 조동성, 1991, *한국개발연구*, 매일경제신문사.
- 조명래, 1992, 산업구조조정과 지역구조의 재편: 후기주변부포디즘의 지역공간구조 이해를 위해, *현대사회*, 41, 21-41.
- 통계청, 1996, *광공업 통계조사 보고서*.
- 한국은행, 1992, *광주·전남지역소재 농공단지 입주업체 실태조사보고*, 한국은행 광주지점.
- Dicken, P. and Lloyd, P.E., 1978, Inner metropolitan industrial change, enterprise structures and policy issues: case studies of Manchester and Merseyside, *Regional Studies*, 12, 181-191.
- Erickson, R.A., 1983, Corporate organization and manufacturing branch plant closures in nonmetropolitan areas, *Regional Studies*, 14, 491-502.
- Probel, F., 1982, The current development of the world-economy : reproduction of labor and accumulation of capital on a world scale, *Review*, 4, Spring.
- Hakanson, L. 1979, Toward a theory of location and corporate growth, in *Spatial Analysis, Industrial Locational Environment*(Hamilton, F.E.I. & Linge, G.J.R.), New York.
- Harvey, D., 1982, *The Limits to Capital*, Basil Blackwell, London.
- Massey, D., 1979, A critique evaluation of industrial location theory, in *Spatial Analysis, Industry and Industrial Environment 1. : Industrial System*, (Hamilton, F.E.I., and Linge, G.J.R., eds), John Wiley & Sons, Ltd, N. Y.
- Massey, D., 1984, *Spatial Division of Labour*, Macmillian, London.
- Massey, D., 1988, Uneven development : social change and spatial divisions of labor, in *Uneven Re-development : Cities and Regions in Transition* (Massey, D. and Allen, J., eds).
- Peet, R., 1987, Industrial restructuring and the crisis of international capitalism, *International Capitalism and Industrial Restructuring*, Allen & Unwin, 9-32.
- Scott, A.J., 1983, Industrial organization and the logic of intrametropolitan location I : theoretical considerations, *Economic Geography*, 59, 233-250.
- Smith, D.M., 1971, *Industrial Location: An Economic Geographical Analysis*, New York, John Wiley & Sons.
- Smith, N., 1989, Uneven development and location theory: towards a synthesis, in *New Models in Geography*(Peet, R. and Thrift, N., eds).
- Vernon, R., 1966,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international trade in the product cycl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May.
- Watts, H.D., 1981, *The Branch Plant Economy: A Study of External Control*, London, Longman.

The Remained Basis and the Locational Characteristics of Manufacturing in Chonnam Region

Kim Jae-Chul*

Summary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mained basis and the locational characteristics of manufacturing in Chonnam region. First, the locational characteristics of manufacturing in the peripheral region examined through theoretical discussions about manufacturing location. And the loca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small and medium firms and large firms be studied as to understand the precedent characteristics of Chonnam region

Chonnam region have the precedent characteristics that the regional capital is not accumulated as Japen exploit agricultural products at a colonial period. And SOC, industry and technology are not developed as geographically Chonnam region turn aside the economics axis of Korea-Japen-America within a period of industrialization.

Manufacturing firms have been make up the traditional indigenous firms which base on local market, agriculture and marine products in Chonnam region. The characteristics of these firms mainly are food & drink, nonmetal industry that is composed

of the small and medium sized firms. The industrial structure is changing to machinery, chemistry, electronics industry from food & drink, nonmetal industry. But these industry is making the simple products. In Chonnam region, these change of industrial structure was expanding to the inland or coast region from the neighboring region of Kwangju metropolitan.

The blanch factories of large enterprises that located in Chonnam region are not connected with small and medium sized firms. The small and medium sized firms are not developed. Because these large enterprises are the iron and steel industry or chemistry industry. So the large-manufacturing firms have characteristics of the capital intensive industry, and make up the monopolistic industrial space of fordism blanch factories.

key word : periphery, regional capital, spatial precedence, indigenous firm, monopolistic industrial space, fordism

* Reserach Fellow, Kwangju and Chonnam Development Institute.